

역대기의 기록자가 가졌던 예언과 예언자에 대한 이해

(신명기 사가-열왕기 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비교)

Amit, Yairah. "The Role of Prophecy and Prophets in the Chronicler's World." Pages 80-101 in *Prophecy, Prophecy, and Prophetic Texts in Second Temple Judaism*. Edited by Michael H. Floyd; Robert D. Haak. Vol. 427 of *Old Testament Studies*. Edited by Claudia V. Camp and Andrew Mein. New York: T&T Clark, 2006.

신명기 역사가 (에스라-느헤미야)	역대기 역사가
예언과 예언자가 하는 역할이 없다.	예언과 예언자가 역대기 역사를 이끌어 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 예언과 예언자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에스라-느헤미야의 때에 예언과 예언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페르시아시대의 영향이라고 본다. 이 시대에는 예언자는 왕국의 정치적인 조언자에 불과하였다.

신명기 역사가 (열왕기)	역대기 역사가
아비야로부터 아하스의 시대까지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왕국에는 단 여섯명의 예언자들만 등장한다(나단, 예후,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요나).	짧은 기간 통치하였던 아시리아와 아몬의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왕의 이야기는 예언자와 연관이 되어 있다. 열왕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예언자들이 등장한다(잇도, 아자리아, 하나니, 엘리제르, 스가라).

신명기 역사가 (열왕기)	역대기 역사가
	다윗 왕가에 대한 예언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대하 8:14)라고 표현한다.

신명기 역사가 (열왕기)	역대기 역사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서로 구분해서 분리하고 많은 예언자들은 북왕국에서 활동한다.	북왕국의 예언자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많은 수는 유다왕국에서 활동한다.

* 역대기가 유다왕국의 예언자들을 더 많이 기록한 이유는 예언자들이 유다왕국에서 끊임없이 활동했으며, 하나님과 유다왕국 사이의 단단한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신명기 역사가 (열왕기)	역대기 역사가
직업적인 예언자나 왕실 예언자(Court Prophet)이 있다.	직업적인 예언자나 왕실 예언자가 없다. 오히려 직업적인 예언자가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원래는 예언자가 아닌데에도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prophet of the moment).

신명기 역사가 (열왕기)	역대기 역사가
	거짓 예언자나 이방신들의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 신명기의 신학에서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예언자가 참 예언자이다. 그리고 예언과 예언의 성취 사이에는 시간적인 틈새가 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렇지 않다. 역대기의 예언은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응답이 따른다. 그러므로 신명기 사가의 예언자들 처럼 그 예언이 성취되기 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그 예언자가 참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를 가려낼 필요가 없다.

신명기 역사가 (열왕기)	역대기 역사가
예언자들은 구체적인 사건과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상벌을 말하지 않고, 그 잘못된 행위의 결과로 장래 세대의 삶이 결정된다고 선포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언자의 역할은 죄로 인해서 빛어질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미래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사라는 이름으로 밝히는 것이다.	예언의 주된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과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상벌이다. 매우 비판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짚고 그 결과를 선포한다.

* 역대기에는 딱 한번 대하 24:19에서 심판이 아닌 회개를 촉구한다.

신명기 역사가 (열왕기)	역대기 역사가
예언자들이 기적을 행한다 .	예언자들이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 오히려 무언가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대하 21:12; 32:20,32).

신명기 역사가 (열왕기)	역대기 역사가
<p>하나님-예언자(하나님과 왕의 연결고리)-왕</p> <p>열왕기에서는 예언자가 왕들보다 더 뛰어난 위치에 있다. 심지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 뿐 아니라, 이방의 왕에게까지도 벌을 내린다. 그리고, 왕을 선택하고 왕권의 정당성을 주는 역할을 예언자가한다(King-maker).</p>	<p>하나님-왕-예언자</p> <p>역대기에서 예언자들은 왕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 예언자들은 왕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일이 어떠한가를 해석해주는 역할을 한다.</p> <p>왕은 예언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기도로 만날 수 있다.</p>

*역대기의 예언자가 열왕기의 예언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1) 예언자만이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Denying professional prophet), (2) 예언자가 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를 예언하지 않는다, (3) 예언자는 기적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4)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예언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는 아니다.

아미트(Amit)는 역대기의 예언자의 예언의 형태가 **역대기 역사가의 설교**라고 주장한다. 역대기 역사가는 예언자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왕이나, 레위인,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를 평가한다. 그러므로 역대기 기자는 설교가 이면서 동시에 **역사가**이다. 아미트는 역대기 등장하는 예언자를 **Historian prophet**이라는 정의한다.